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美 경제지표 호조에도 저가매수세로 낙폭 소폭 만회하며 마감

* 국채가격, FOMC 부의장인 뉴욕 연은 윌리엄 더들리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에 아시아장과 유럽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덕분에 확대한 상승 폭을 반납하고 하락 출발
  - 뉴욕 장이 열리기 전 美 국채와 유럽 선진국 국채의 강세는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안전자산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

*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국채가 하락이 더 진행되는 듯하다가 저가매수세 등장에 낙폭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남

[미국]
2y 1.12% (+2.6bp)
5y 1.85% (+2.7bp)
10y 2.40% (+1.5bp)
30y 3.07% (+0.8bp)

[기타 10Y물]
영국 1.40% (+2.3bp)
독일 0.33% (+5.0bp)
프랑스 0.78% (+7.1bp)
이탈리아 1.98% (+8.3bp)
스페인 1.55% (+1.1bp)
그리스 6.42% (+6.3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에도 일제히 상승...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마감

*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따른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융주 강세가 증시 상승츨 이끔... 금융업종이 1.1% 넘게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 기록

* 美 서비스업 경기,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
  - 11월 서비스업 PMI 전월대비 2.4 포인트 상승한 57.2 기록... 예상치 55.5를 크게 웃도는 수준
  - 고용지표 호조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

* 美 FRB 고위 인사들,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... 특히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인정
  -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'美 경제가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선호...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촉진할 수 있다' 진단
  -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'금리 상승기의 시작점에 있다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' 전망 ... 재정

정책과 다른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시기라며 판단 유보
-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연준의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 후 동결하는 전망을 유지

* <유럽 마감>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승 마감
이탈리아 증시, 장 초반 2.1% 급락하기도 했지만 후반 들어 낙폭을 만회... 이탈리아 은행 업종 지수는 4.6% 급락한 후 2.2% 하락한 수준까지 회복

* <상하이 마감> 이탈리아의 개헌 국민투표 부결이 수출주에 악영향을 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전화통화로 인해 미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확산으로 하락
-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,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'긴밀한 경제·정치·안보 관계' 논의
미국, 중국이 절대적 원칙으로 고수해 온 '하나의 중국'을 받아들여 1979년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 정상과 접촉하지 않아 왔음
이날 통화는 미·중 관계의 금기를 깬 것이라 향후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구애받지 않는 정책으로 나설 경우 중국의 경제적·군사적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두 나라의 정면충돌로 국제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 증폭

* <도쿄 마감>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의 부결로 유럽의 혼란이 가중되며 하락 마감
이탈리아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이 여파로 일본내 금융업종 또한 하방압력을 받음

DOW30	19216.24	(+0.24%)
NASDAQ	5308.89	(+1.01%)
S&P500	2204.71	(+0.58%)
NIKKEI225	18274.99	(-0.82%)
SHANGHAI	3204.71	(-1.21%)
FTSE100	6746.83	(+0.24%)
DAX30	10684.83	(+1.63%)
CAC40	4574.32	(+1.00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미 국채수익률이 오르지 못하면서 유럽 정치 불안정에도 유로화에 내리는 등 혼조세

유로화,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에 따라 유럽장에서 1.0505달러로 20개월래 최저치 기록
여론조사에서부터 부결 가능성이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뉴욕장 들어 1.0740달러까지 반등

유로/달러	1.0760	(+0.0097)
유로/엔	122.42	(+1.31)
달러/엔	113.75	(+0.18)
달러/위안	6.8870	(+0.0076)
파운드/달러	1.27349	(+0.00079)

NDF 1167.50 / 1168.50원...6.60원 하락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달러 약세와 석유수출국기구(OPEC) 감산 합의 효과 지속... 한 때 55.33달러까지 상승하며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
* <국제 금값>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됐음에도 하락...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우려 완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금가격에 부담

WTI 51.79 (+0.2%)
COMEX금 1176.50 (-0.1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1963.36 (-0.37%)
코스닥 575.12 (-1.98%)
원/달러 1174.60 (+2.00)
KTB 109.30 (+0.14)
LKTB 125.09 (+0.84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유로존 지역 불확실성 점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 하락 마감. 외인의 국고채 5년물 16-4호 매수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.

CD(91d) 1.5400% (0.00bp)

[국고채]
1y 1.5850% (-2.30bp)
3y 1.7200% (-4.10bp)
5y 1.9150% (-7.50bp)
10y 2.1820% (-7.80bp)
20y 2.1870% (-8.80bp)
30y 2.1850% (-9.00bp)
50y 2.1800% (-8.50bp)

[통안채]
1y 1.5830% (-2.70bp)
2y 1.7020% (-2.5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7.55bp (+0.70bp)
2Y -16.45bp (-0.50bp)
3Y -14.00bp (+0.60bp)
5Y -25.00bp (+2.25bp)
10Y -36.20bp (+1.05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국채선물 급등 등 현물시장에 따라 금리 하락 마감. 커브 플래트닝. 장기물은 비드가 거의 보이지 않음.
* CRS, 달러-원 환율이 오르면서 금리 하락 마감.

*IRS 금리

1Y 1.5075% (-2.00bp)
2Y 1.5375% (-3.00bp)
3Y 1.5800% (-3.50bp)
5Y 1.6650% (-5.25bp)
7Y 1.7275% (-5.50bp)
10Y 1.8200% (-6.75bp)

1*2Y 3.00 (-1.00bp)
2*3Y 4.25 (-0.50bp)
2*5Y 12.75 (-2.25bp)
3*5Y 8.50 (-1.75bp)
5*7Y 6.25 (-0.25bp)
5*10Y 15.50 (-1.50bp)

*CRS 금리

1Y 1.0200% (-2.50bp)
2Y 1.0950% (-3.00bp)
3Y 1.1500% (-3.00bp)
5Y 1.2000% (-4.00bp)
7Y 1.2100% (-4.00bp)
10Y 1.2050% (-4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...취약한 이탈리아 은행들이 줄도산에 내몰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 증폭
  - 렌치 총리, 자정을 넘긴 시간 총리 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'전면적 책임을 지겠다. 정부에서의 내 경력은 여기서 끝난다' 며 사퇴 선언
  - 英 파이낸셜타임스, 한때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이탈리아 3대 은행 몬테 데이 파스키 데 시에나(BMPS)를 포함해 8곳의 은행들이 줄도산할 가능성 있다고 경고
  - 개헌안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과 반(反)이민·반 유럽연합(EU)을 주장하는 극우 북부리그(NL)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떠나는 '이탈렉시트'(Italexit)가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

* 日 재무성 외환정책 실무 책임자 '일본은행(BOJ)의 통화 완화 정책만으론 디플레이션 심리를 해소하기 어렵다' 진단
  - 'BOJ가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업은 지출과 임금 인상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'며 이같이 주장...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디플레 심리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

* 존 키 뉴질랜드 총리, 갑작스레 사임 발표... 빌 잉글리시 부총리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
  -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<ANZ>

*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 전월치(52.4)보다 0.7 포인트 상승한 53.1 집계
  - 신규 프로젝트와 신규 주문 증가가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에 기여

* 유로존 11월 종합 PMI, 전월대비 0.6 포인트 상승한 53.9 ... 11개월래 최고치 기록
  - 11월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을 시사... 유로존 4분기 성장률이 0.4% 기록하는 데 청신호

[국내]

* 한은, 2017년 위안-원 시장조성銀 새로 뽑는다

* 국고 5년 0.7조 1.970% (-0.3bp) 낙찰...응찰 2.44조

* '불확실성=안전자산 선호' 공식 깨진 채권시장
- 한국의 정치리스크의 전개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에는 국제신용평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리스크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

금일 예정 지표

[호주중앙은행(RBA) 기준금리 결정]
[영란은행(BOE) 금융정책위원회(FPC) 11월 의사록]
[유럽연합(EU) 재무장관 회의]

독일-10월 공장주문(MoM) (예상:0.6%, 이전:-0.6%)
유로존-3분기 GDP(YoY) (예상:1.6%, 이전:1.6%) / 3분기 GDP(QoQ) (예상:0.3%, 이전:0.3%)
미국-3분기 비농업 생산성(QoQ) (예상:3.3%, 이전:3.1%)
-10월 무역수지 (예상:-41.60B, 이전:-36.40B)
-10월 공장주문(MoM) (예상:2.5%, 이전:0.3%)